



李 萬 用 金星반도체(株)社長/本會 非常勤 理事

## 挑戰과 改革의 意志로

庚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電子振興” 독자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健康과 幸運이 함께하기를 祈願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는 감내키 어려운 여러가지 國內·外的 도전에 직면하여 우리經濟 및 企業들이 큰 시련을 겪은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政治·社會面에서는 거세게 일어났던 民主化의 물결에 따라 각종 社會的 갈등의 확산과 계층간의 다양한 욕구의 분출로 많은 갈등과 이에 따른 여러가지 감당키 어려운 큰 충격을 체험하였습니다.

經濟的으로는 勞使紛糾와 賃金上昇, 原料切上, 先進國들의 강화된 保護貿易障壁 및 國內市場開放壓力 등에 의해 '62년 이래 처음으로 輸出物量의 감소를 초래함과 아울러 '86년 이후 3년연속 12%대의 成長率이 6%대로 뚝 떨어지면서 실업률의 증가, 投資의 둔화 등 우리經濟는 다시 危機의 상황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國內外 變化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危機克服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經營體制의 재정비, 國際進出, 競爭力回復 등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어려웠던 狀況을 슬기롭게 대처해 왔습니다.

'90년대에도 政治, 社會, 經濟 등 모든 분야에서 갈등과 시련이 지속될 것이며 때에 따라서는 그 強度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情報通信産業이 이러한 對内外의 인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90년대의 主導産業으로 成長하기 위하여는 尖端의 新技術·新製品開發, 生産性 向上, 經營合理化 등을 통한 질적개선과 구조합리화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망의 '90년대를 맞아 올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施策을 推進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첫째는 항상 未來危機를 사전에 對備하고 企業을 영속적인 發展의 궤도에 올려놓을 새로운 企業文化를 창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技術의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先進企業과의 競爭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技術自立을 위한 研究開發과 人력 확보에 최우선 投資하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의 제한된 資源을 效率적으로 운용하는 것과 시너지효과 극대화에 장애가 되는 모든 要因을 과감히 척결하는 것입니다.

네째로 점차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北方經濟交流의 기반조성에도 가일층 努力을 경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무리 어려운 環境하에서도 적절한 對應과 불황기를 새로운 跳躍을 위한 整地作業期間으로 이용하는 슬기를 발휘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事業展開의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으므로 항상 挑戰과 改革의 意志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부단한 努力을 기울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앞날에 반드시 서광이 비치리라 확신합니다.

